

2021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15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보좌에 앉게 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 하나님의 시,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산출물인 새 예루살렘이 됨

성경: 롬 5:10, 17, 21, 요 1:16, 엡 3:2, 벧전 5:5, 히 4:16, 창 6:8, 계 22:21

- I.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어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신다 — 요 1:14, 16-17, 고후 1:8-9, 12, 갈 2:20, 고전 15:10, 롬 5:10, 17.
- II. 은혜의 번성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데 있어서 번성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친다 — 벧전 1:2 하, 벧후 1:2, 요 1:16, 엡 1:6-8, 2:7, 롬 5:17, 21, 딤펴전 1:14, 계 22:21.
 - A.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한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짐을 더 질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더 많은 기회를 갖는다 — 고후 12:7-9, 비교 1:12, 15.
 - B. 은혜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한다 — 엡 6:24, 요 21:15-17, 벧전 1:8.
 - C. 매일 매순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됨으로써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넘치는 은혜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 요 1:16, 롬 5:17, 21.
- III.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성도들이 서로 공급한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풍성들을 가리킨다 — 벧전 4:10, 엡 3:2.
 - A.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며, 많은 방면에서 우리 안으로 공급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 고후 13:14, 12:9.
 - B.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인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섬겨야 한다 — 벧전 4:10-11, 눅 4:22, 엡 4:29.
 - C.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헬라어, 오이코노미아)”이다 — 엡 3:2, 눅 11:11-13, 요 4:10, 7:37-38.
- IV.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신다 — 벧전 5:5.
 - A.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 비교 요 13:3-5.
 - B. 겸손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파멸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도록 하지만 교만은 우리를 가장 어리석은 자로 만든다 — 약 4:6, 시 138:6, 잠 29:23.
 - C.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 기꺼이 겸손하고 겸허해져야 하고 우리의 삶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고 신실하게 돌보시기 때문이다 — 벧전 5:5-7, 비교 시 55:22.

V.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 히 4:16.

- A. 의심할 것 없이 여기 언급된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다(계 4:2).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에 대한 권위의 보좌이다(단 7:9, 계 5:1). 그러나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 덮개(시은좌)로 상징되었다(출 25:17, 21, 시 80:1). 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기도 하다(계 22:1).
- B.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이신 그리스도의 보좌로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4장 12절에서 언급된 우리의 영이다.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계시는 분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롬 8:34)가 또한 지금 우리 안에(롬 8:10),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엡 2:22)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딤후 4:22).
- C.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곧 하늘의 문인 베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시는 사다리이시다(창 28:12-17, 요 1:51).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 D. 우리는 주님 자신이 영광의 보좌이자 은혜의 보좌이신 것을 보아야 한다(사 22:23, 히 4:16).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허락할 때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임재(겔 1:22, 26)로서 우리 안에 있는 보좌에 앉을 것이다(롬 5:21).

VI. 창세기가 기록된 주된 목적은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A.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가 살던 부패한 시대의 참된 상황을 보여주셨다 — 창 6:3, 5, 11, 13, 마 24:37-39, 딤후 3:1-3.
 - 1. 사람은 결국 완전히 육체가 되는 정도로 타락했다(창 6:3).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악한 원수는 우리의 육체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철저히 절대적으로 미워하신다.
 - 2. 구약에서 아말렉은 타락한 옛 사람의 총체인 육체를 예표한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믿는 이들 속에서의 육체와 그 영의 다툼을 묘사한다 — 출 17:8-16, 갈 5:16-17.
 - a.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계속 싸우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미워하시고 멸절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출 17:16, 갈 5:17.
 - b. 육체는 바뀌거나 개선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롬 13:14, 갈 5:16.
 - c. 하나님은 사탄을 미워하시는 것과 똑같이 육체를 미워하시며 사탄을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것과 똑같이 육체를 멸망시키기 원하신다 — 출 17:16, 신 25:17-19, 삼상 15:2-3.
 - d. 우리는 중보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싸우시는 영에 의해 아말렉에 맞서 싸운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든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의 영역에서 중보기도하시는 것을 예표한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내주하시는 영께서 육체에 맞서 싸우시는 것을 예표한다 — 출 17:9, 11, 13, 롬 8:34, 히 7:25, 갈 5:17.
 - e.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는 중보기도하시는 그리스도(롬 8:34)와 하나되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싸우시는 영과 하나되기 위해 육체를 죽음에 넘김으로 주님과 협력해야 한다(눅 18:1, 살전 5:17, 롬 8:13, 갈 5:16-17, 24).
 - f. 하나님은 하늘 아래서 육체에 대한 기억마저도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육체에 맞서 싸우신다는 결정을 내리셨다 — 출 17:14.
- B.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총(은혜)을 입었다.”라고 한다.
 - 1. 육체는 사탄의 걸작품이고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장소이다. 은혜는 우리가 누린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가 육체에 속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 2. 육체는 사탄의 임재 자체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다. 우리가 사탄의 임재를 대처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3. 사탄이 상황을 손상시키려고 힘을 다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시대를 전환하는 이들이 되었다 — 비교 단 1:8, 9:23, 10:11, 19.
 - a. 은혜는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임재이다 — 요 1:14, 16-17, 계 22:21.
 - b. 우리는 사람의 영을 사용함으로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 — 히 10:29 상, 갈 6:18, 빌 4:23, 몬 25, 딤후 4:22.
 - c.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 행 20:32, 골 3:16, 비교 렘 15:16.
 - d. 우리는 하나의 터 위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생명의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한다 — 시 133:3, 벰전 3:7, 행 4:33, 11:23.
 - e.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점점 증가하며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은혜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 고후 12:9.
 - f.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 — 고전 15:10, 58, 3:10, 12 상.
 - g.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힘과 은혜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를 수 있고 우리들 서로에게도 올바를 수 있다. 객관적인 의는 은혜를 산출하고 은혜는 주관적인 의를 산출한다 — 히 11:7, 롬 5:17, 21.

- C.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계시, 곧 방주를 건조하기 위한 계시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대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오시기 위한 길이었다. 노아의 일은 시대를 바꾼 일이었다 — 고전 2:9, 고후 6:1, 마 16:18, 고전 3:12.
 1. 방주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새 사람인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이다(벰전 3:20-21, 마 16:18, 고전 12:12, 엠 2:15-16, 골 3:10-11, 계 21:2).
 2.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이다(고전 12:12, 엠 4:11-16). 이것이 우리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시대, 곧 천년왕국 시대 안으로 이끌리기 위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빌 2:12-16, 히 11:7, 마 24:37-39, 눅 17:26-27).

VII.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산출물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하나님의 시(詩)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풍성들은 모든 제한을 넘어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전시될 것이다 — 엠 2:7-10, 벰후 3:13, 계 22:21.

아담 안의 유산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의 선물

온 우주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있다. 첫 사람은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을 포함하며,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출생에 의해 첫 사람 안에 포함되었다가, 거듭남에 의해 둘째 사람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첫 사람에서 나와 둘째 사람 안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믿은 것은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자산(資産)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 안의 선물은 부채(負債) 면에서 사람의 타락을 통해 아담 안에서 받은 유산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 지우고도 남는다.

인류의 회계 장부 안에 있는

우주적인 대차대조표

<u>아담 안의 부채</u>	<u>그리스도 안의 자산</u>
1) 아담	1) 그리스도
2) 범죄 (허물이나 불순종)	2) 순종
3) 죄	3) 은혜
4) 심판	4) 의(義)의 선물
5) 유죄 판결	5) 의롭게 됨
6) 죽음	6) 생명